

“국내선마저?”...코로나 재확산에 전문 감도는 항공업계

“국내선도 위험” 벼랑끝 몰린 LCC

화물로 버티는 대형항공사도 ‘불안’

항공사 인수전 찬물 끼었을 우려도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며 항공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빨라지며 국내선 여객 수요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전멸에 가까운 국제선 여객 수요의 회복세 또한 한층 더더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전날 오전 0시 이후 하루 사이 246명 늘어난 1만5761명이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 54명, 13일 56명에서 14일(103명) 100명대를 기록한 뒤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이날 246명으로 다섯째 세 자릿 수를 보이고 있다.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235명, 해외 유입이 11명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을 보이면서 국내선 운항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들은 충격파를 우려하고 있다.

LCC들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여객 운항이 난관에 부딪히자 국내선 노선 운항 횟수 확대, 신규 취항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수개월간 진정세를 보이는 틈을 타 국내선 항공편 확대에 박차를 가해 온 것이다.

인기 여행지인 제주, 부산 노선

증편은 물론 비인기 노선인 무안, 양양 등 노선까지 취항하며 생존 경쟁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국내선 여객 수를 상당 수준 끌어올리며 최악은 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는 지난달 국내선 탑승객 345만5451명을 수송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1%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선 항공편은 기본 운임이 낮고 공급이 늘며 출결경쟁 양상으로 흘러 실제 수익성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LCC들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적자를 지속하며 손실폭을 키웠다. 1위 LCC 제주항공은 올 상반기 14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손실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도 각각 909억원, 704억원, 8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형항공사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



물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2분기 깜짝 흑자를 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은 결국 최대 수익원인 국제선 여객 운항 정상화를 늦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수합병(M&A) 무산 위기 속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대면 협상 기회가 겨우 마련된 가

운데,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국내 항공시장의 재편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또한 코로나19에 M&A 작업에 제동이 걸리며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돼 회생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항공업계의 회복이 더뎠다는 것은 물론 LCC들의 마지막 카드인 국내선 운항 수요도 부진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카니발, 6년만의 귀환...웅장한 볼륨감 · 모빌리티기술

국내 최초 AR 온라인 발표회...3만2만대 사전 계약



기아자동차의 미니밴 카니발이 6년만에 돌아왔다.

기아차가 18일 미니밴 신형 4세대 카니발의 온라인 런칭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형 카니발은 2014년 3세대 이후 6년만에 선보이는 4세대 모델로 기존 미니밴의 전형성을 탈피한 과감한 시도로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독보적인 공간 활용성, 최신 편의 사양, 첨단 기술로 고객에게 최상의 프리미엄을 선사한다.

기아차는 4세대 카니발의 우수한 상품성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런칭 발표회를 기아차 유튜브 채널, 네이버 자동차 등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계한다.

기아차는 4세대 카니발의 역동적이고 웅장한 외장 디자인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프리미엄 실내공간으로 미니밴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다.

기아차는 ‘웅장한 볼륨감(Grand Volume)’을 외장 디자인 콘셉트로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벗어나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으로 신형 카니발을 완성했다.

전면부는 박자와 리듬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주간주행등(DRL)과 LED헤드램프와의 경계를 허문 심포니 아키텍처 라디에이터 그릴로 웅장한 인상을 구현했다.

측면부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C필라의 독특한 입체 패턴 크롬 가니쉬로 4세대 카니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 후면부는 좌우가 연결된 슬림한 리어컴비 램프와 크롬 가니쉬, 웅장한 후면 범프 등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실내는 매력적인 첨단 공간으로 완성했다.

기아차는 ‘무한한 공간 활용성(Spatial Talents)’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공간 활용성에 차별화된 프리미엄을 더해 사용자의 일상에 최상의 공간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신형 카니발의 실내를 디자인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의 센터페시아 버튼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는 감성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크래쉬 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슬림한 에어벤트(송풍구) 일체형 메탈 가니쉬는 하단의 고급 가니쉬와 완성도 높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다.

기아차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여유로운 공간에 사용자를 위한 배려를 담아 4세대 카니발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4세대 카니발은 ▲등급 최고의 승·하차 편의 신기술 ▲사용자를 섬세하게 케어하는 안락한 프리미엄 공간 ▲운전자와 차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빌리티 기술 ▲차급을 뛰어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최상의 상품성을 갖췄다.

기아차는 4세대 카니발에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원격

파워 슬라이딩 도어 & 테일게이트 동시 열림 · 닫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자동 닫힘 기능 포함), 안전 하차 보조, 승하차 스팟램프 등 타고 내리는 모든 순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동급 최고 승·하차 신기술을 적용했다.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7인승 전용), 2열 사용자를 위한 확장형 센터콘솔, 후석 공간에는 보조 에어컨 필터 등을 적용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사용자를 무중력 공간에 떠 있는 듯한 자세로 만들어 엉덩이와 허리에 집중되는 하중을 완화시키고 피로도를 줄여준다.

후석 음성 인식, 내 차 위치 공유, 2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 카투움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탑재해 감성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후측방 모니터(BVM),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해 운전자 주행 피로도 경감뿐만 아니라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4세대 카니발의 인승별 사전 계약 비율은 7인승 25%, 9인승 70%, 11인승 5%로 9인승과 7인승 카니발을 찾는 고객들이 많았다.

엔진별로는 디젤 모델이 80%, 가솔린 모델이 20% 계약됐다. 4세대 카니발의 판매가격은 9인승·11인승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지 3160만원(9인승 이상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디젤 모델은 120만원 추가) ▲노블레스 3590만원 ▲시그니처 3985만원이다.

7인승은 가솔린 모델 ▲노블레스 3824만원(개별소비세 3.5% 기준, 디젤 모델은 118만원 추가) ▲시그니처 4236만원이다.

아울러 기아차는 연내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는 가솔린 4인승 모델이 추가돼 4·7·9·11인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수해피해 입은 구례5일장, 점포 90% ‘무등록’

중기부, 등록 소급 적용키로

박영선 “지금이라도 등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전통시장의 무등록 점포에 대해 등록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구례5일시장 157개 점포 중 등록 점포는 15개 뿐이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8일 전남 구례5일시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5일장 157개 점포 중 15개만 등록돼있고 나머지 다 무등록 점포다”라며 “무등록이면 국가에서 지원 방법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그래서 지금 세운 묘안이 지금 등록을 해도 소급 적용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다”며 “대신 지금이라도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들 무등록 점포가 그간 판매한 전표나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하면 등록점포로 인정하고, 수해피해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점포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현장반을 대동했다. 현장에서 바로 점포 등록을 마치고 용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이에 박정선 소상공인연합회 구례지회장은 “사실 수해가 나고 나서 광주중소기업청장, 소진공, 전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지난 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 5일장 시장 수해 피해지역에 쓰레기가 가득히 쌓여 있다.

북신보재단이 제일 빠르게 왔다”며 “발 빠른 대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은 “전표가 다 떠내려가고 물에 젖어서 전표로 5일 시장 증명할 수 있는 상인 없다”며 “투자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로 증명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인들의 건의도 쏟아졌다. 특히 이어진 상인간담회에는 피해 상인들의 수습팀이 모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를 치는 등 대체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이 등록 소급적용 방침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일부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도 했으며, 지원 내역을 설명하자 꼼꼼히 메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구례5일장 상인회장은 “시장을 좋은 것으로 구례시장에 맞게끔(신축)해줬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A 상인도 “하루 속히(기존 목재 건물들) 다 밀어버리고 신축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상인은 “온라인 지원센터만 들어서 모든 점포가 혜택 받을 수 있고 항구적으로 지원되도록 해달라”며 “일시적으로 지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덴탈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최고치...“공급 원활”

비교적 숨 쉬기 편해 여름철에 많이 쓰는 수술용(덴탈)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하루 생산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주인 8월 둘째 주(10~16일) 마스크 총 생산량은 1억8309만 개였다.

보건용 마스크는 8890만 개(48.6%), 비말차단용 마스크 8325만 개(45.4%), 수술용 마스크 1094만 개(6.0%)로 집계됐다.

이 중 수술용 마스크는 집계 이후 하루 생산량 최고치인 221만 개(11일)를 만들어 냈다. 전주 854만 개 보다 240만 개 늘어 주간 1000만 개 생산을 돌파했다.

의료기관 공급량은 8월 2주 515만 개로, 전주(528만 개)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역시 하루 생산량 최고치인 1649만 개(12일)를 기록했다. 전주 826만 개 대비 29만 개가 추가 생산됐다. 보건용 마스크는 전주 852만 개 대비 318만 개가 추가 생산됐다.

주간 생산량 1억8309만 개

보건용 가격 1400원대 초반

“마스크 착용 더욱 중요”

마스크의 가격은 온·오프라인 모두 하락 안정세로 진입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KF 94) 온라인 가격이 1400원대 초반 가격까지 하락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온라인 가격은 지난주

787원(8월7일)으로 700원대로 처음 진입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KF 94)의 판매 가격은 온라인 1482원(6일)에서 1410원(14일)으로 오프라인 1734원(6일)에서 1720원(13일)으로 각 소폭 하락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의 판매 가격은 온라인 812원(6일)에서 741원(14일)으로 하락했다. 오프라인은 720원을 유지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여름철 무더위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수건이나 휴지 등을 사용할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된다. 마스크 이외의 물건을 덧대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